



민주-혁신 합당 변수에 광주·전남 6월 지선 '술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설에 정치권이 출렁이는 가운데 양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 정가도 6월 지방선거를 4개월여, 경선과 공천심사를 2개월여 앞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찬반이 갈리고 있고, 합당을 가정한 유·불리 쟁점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당 과정에서 비박이나 밀당이 예상되는 중대선거구제도 지방선거 중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목표 같으면 함께 가자” vs “협의 없는 독단적 제의”

광주·전남 최다선(6선) 의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합당론이 제기된 후 SNS와 강연 등을 통해 “(정권 재창출 등)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한다. 못지않게 더 커지고 이익이고, 분열하면 망한다”며 밝혔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인 같은 당 민형배 의원에 “양당의 합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것처럼, 국민의 힘을 완전히 쪼그라뜨리는 6·3 지선 필승 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문근주·전진호·정준호·조계원 의원 등 초선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당 대표의 독단적 제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합당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직 단체장과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출마선언

“함께 가자 vs 독단적 제의” 합당 제안에 찬반 엇갈려

“표 분산 방지·지선 압승” vs “공천권 충돌·계파 갈등”

이나 출판기념회를 이미 마쳤거나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합당 논의를 요의주시하면서도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할지 심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혁신당 입지자는 “일당 독점에 맞서겠다는 ‘호남 메기론’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온다”고 하소연했다.

합당 성패에 따라선 6월 지선에 이어 8월 정당대회에서도 계파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표 분산 방지·지선 압승” vs “공천권 충돌·계파 갈등”

지역 정가에선 합당 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합당 찬성 진영에선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대오를 구축, 표 분산을 막고 압승을 통해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에 힘을 실어 각종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때마다 10명 가까운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해온 전남에서는 경선 룰에 따라서는 공천 탈락자의 ‘제3의 길’을 차단할 수 있고, 여론 지지층의 표 결집으로 무소속 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합당의 대표적 부작용인 공천 갈등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크다. 합당 과정에서 신설 합당일지, 흡수 합당일지, 당 대표를 단독으로 할지, 공동대표 체제로 할지 등 큰 틀의 방향타가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는 나와야 할 상황이다.

또 (예비) 경선룰은 어떻게 할지, 혁신당 지지층이 포함된 국민경선을 진행할지, 양당의 선명성이나 지향점을 중시해온 지지층의 이탈 여부도 예민한 변수다. 이를 의식해선 민주당은 주말 냉각기에 들어갔고, 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의 독자적 가치와 정치적 DNA를 수차례 강조하며 “지분을 따지면 모두가 망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그러나, 조 대표의 이같은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정가 관계자는 “통합되면 세가 약한 쪽, 소위 흡수되는 쪽에서는 단체장 몇 자리와 지방 의원, 비례대표 등에 대한 배려를 요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의 기대 효과는 분명하지만, 불발 시 양당 대표 모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정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합당론에 ‘중대선거구제 확대’ 여부 관심

합당 의제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꼽힌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호남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줄곧 제기해왔으나,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진척이 없는 개혁안으로, 합당 제안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 주목된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지점은 기초의원 선거로,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주장이다.

거대 정당이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의석을 독점하거나 국회의원 사천(私薦) 논란을 불러온,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 당선 폐습을 차단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3-5인 선거구 확대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합당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2022년 자치구 중대선거구제 보고서를 통해 ‘시범지역에서 소수 정당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한 뒤 ‘향후 전국적으로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에는 기초의회를 3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광역의회 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뉴스

광주 아동·청소년 수두 급증...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 “전염성 강해... 등원·야외 활동 중단”

#. 광주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4살 둘째 아들이 미열과 가려움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수두로 진단받았다. 전염성이 강한 급성 발진성 감염 질환이라 첫째 아이에게 옮길까 걱정돼 당분간 첫째를 시택에 보냈다. 광주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빈발하는 수두가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광주시 2주차 기준 수두 발생 건수는 29건으로 1주차(25건) 대비 4건(16%) 증가했다. 2026년 2주차 수두 발생은 전년 동기(8건) 대비 262.5%(29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48주차 8건이던 수두 발생은 49주 14건, 50주 21건, 52주 23건, 올해 1주 25건, 2주 29건으로 매주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두는 급성 미열과 함께 전신에 가려운 발진성 수포가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수두 환자 90% 이상이 아동·청소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두는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로 나뉜다. 발진 발생 1-2일 전 전구기에는 미열과 권태감이 나타나며, 소아의 경우 발진이 처음 치명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발진기에는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등이 온몸에 발생하며 주로 몸통과 얼굴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수포가 가피로 아물 때까지는 타인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회복기에 이르면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형성되면서 발진 등이 사라진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인보다 면역이 불안정해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더 쉽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밀접하게 생활하는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하다.

예방법으로는 마스크 착용, 기침·재채기 시 입 가리기, 손 자주 씻기, 예방접종 등이 있다. 예방접종은 만 13세 미만은 1회, 만 13세 이상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된다.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는 “수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전염 기간 동안 등원·야외 활동 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 관광 취약계층 여행상품 지원... 최대 5천명 규모

전남도는 지역 내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도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과 거동 불편으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전남도 대표 복지관광 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최대 5000명 규모다.

1인당 당일 여행은 18만원, 1박2일 여행은 38만원 상당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여행상품은 주요 관광지과 체험 상품·숙박·식사 등을 포함한다.

1박2일 여행상품은 지난해까지 도서지역 시·군(완도·진도·신안)으로 한정해 운영했지만, 올해는 권역형 여행상품(2개 이상 시군 방문)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행상품까지 확대한다.

시·군별로 2월까지 여행사 공모를 통해 여행상품을 선정할 뒤 3월부터 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행상품과 참가자 모집 일정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관광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